

일제강점기 裡里에서의 일본인의 균열과 도시침체

- 일본인 저작을 중심으로 -

신귀백*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조선 이주안내서 『裡里案内』 | 참고문헌 |
| 3. 유지정치와 이리의 약진 | <Abstract> |
| 4. 일본인 사회의 균열과 침체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 일본인의 저작에 한정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타자의 시선으로 본 이리’를 검토하려는 의도이다. 야마시타 에이지(山下英爾)는 1915년 읍지(邑誌) ‘성격’의 도시안내서 『湖南寶庫 裡里案内, 近接地事情』을 발간 후, 1927년 개정·증보한 제2판 격의 『湖南寶庫 裡里案内, 一名 益山發展史』를 발간한다. 이민 1세대의 치적정리와 소위 쌀의 생산지에 정착할 2세대 이민자의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목적의식으로 제작된 이민생활백서 내지는 안내서라 할 것이다.

1927년에 간행된 『裡里案内』는 당시로는 막대한 제작비가 든 100여 장의 사진 화보로 보아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홍보, 정착과 지배세력 확장이라는 목표의식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1921년에는 동척이리지점이, 1922년에는 이리관립농림학교가 들어서고 대아댐 건설과 대간선수로공사가 완공되면서 이리는 1927년 조선의 도시 중 26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성장하는 약진을 보여준다. 이리의 기업형 농장주들은 대농장을 거느리며 기차역을 독점했다.

* 익산근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mail: butgood@hanmail.net

그러나 이 책에는 안내서의 관례인 ‘협찬 명단과 광고지면’이 안 보인다. 지주들의 이리 거주와 상수도 문제의 미흡 지적 등 지역 언론인의 이리지역 발전을 위한 고언을 도전으로 의식한 유지(有志)들의 압력으로 판단된다. 이후 이리지역은 동척의 이민사업의 중지로 인한 일본인 이민의 진입이 한계에 이르고 관립사범학교와 여자고보 설립유치에서 이리는 전주와의 경쟁에서 밀린다.

1928년 이리의 유지그룹은, 1년 만에 관찬으로 『益山郡事情』을 발간한다. 이 두 권의 상관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니 거기에는 일본인 이민사회의 균열이 있었다. 이후 거대지주 오하시 요이치(大橋與市)의 토지매각에 이어 조선의 수리왕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郎)마저 퇴출되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인들은 그들이 세운 이리역을 통해서 빈손으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주제어 : 裡里, 益山, 일제강점기, 일본인 이민자, 『裡里案内』, 『益山郡事情』

1. 머리말

이 연구는 식민지 시대 일본인이 저술한 裡里라는 도시를 다룬 저작물을 검토한 결과 일본인의 균열과 도시침체를 밝힌 글이다. 두 권의 제목에는 ‘안내(案内)’라는 말이 붙고 또 한 권은 ‘사정(事情)’이라는 말이 붙는 것(을 보면 읍지(邑誌)나 역사서로 보기엔 분명 무리가 있다는 것을 책을 제작한 일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음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益山)시는 금마로 대표되는 익산군이라는 농촌 전통 공간과 100여 년 전 탄생한 일제강점기 ‘이리(裡里)’라는 신흥도시가 결합한 도농복합도시이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裡里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이민자²⁾에 의해 형성된 도시다. 오사카와 군산을 잇는 제국주의 식민지 교통체계 속에서 내륙 농촌 배후도시로 탄생한 정거장을 중심으로

1) 식민지 경영초기에 일본인들이 발행한 도시의 지리지에는 안내(案内)나 사정(事情)이란 제목이 많이 붙었다. 『韓國案内』(1902), 『最新韓國事情』(1909), 『慶尙南道案内』(1914), 『裡里案内』(1915) 등

2)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 이민(移民)의 정의는 ‘3개월 이상 삶의 근거지를 옮겨 타국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일제는 조선을 식량공급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인 농업 이민자를 수용하였다. 대표적으로 동양척식회사의 농업이민계획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리지역은 러일전쟁 전후로 대지주 농장이 설립되고 일본인 이민자들이 몰려왔다. 본 연구에서 이민자는 제국의 식민지 침략의 수탈이 총독부를 비롯한 국가권력과 대지주들 위시한 민간인이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수행된 공간인 이리지역에서의 재조 일본인을 의미한다.

형성된 이리³⁾라는 공간은 과거 촌락입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도시의 탄생이었다. 도시의 시스템은 100년 넘게 이어져 익산은 오늘날도 철도교통의 거점도시이고 익산시민들은 일본인이 건설한 대아댐에서 이어진 대간선수로 를 통해 전달된 식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⁴⁾ 또한 익산시의 많은 초중고등학교와 단체의 이름에는 이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12년 호남선 이리역이라는 정거장 설치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솜리는 裡里로 명칭이 바뀐다. 역 앞에 신시가가 조성되었고 솜리지역은 구시(구이리)가 되었는데, 신시가지 명칭에는 정(町)을 사용했고, 구시가지는 리(里)를 사용했다. 청부업자와 토건세력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 속 일본인 이민의 유입과 조선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이리는 1917년 지정면(指定面)으로 승격되었다.⁵⁾ 1931년 읍으로 성장한 이리는 해방 후, 이리부(1947년)와 이리시(1949년)를 거쳐 1995년 익산군과 통합하여 익산시라는 명칭을 가진 호남 제3의 도시로 성장한다.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가 솜리를 모태로 시작된 裡里의 탄생과 발전에 주목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리라는 신흥도시가 탄생할 때부터 전통과 근대, 해양과 농경문화의 갈등, 거대농장과 수리조합으로 대표되는 식민지경영과 척식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개발에 대한 갈등으로 나타나는 소작쟁의 등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인의 자주성을 찾으려는 저항의 과정이기도 했다.

식민도시 이리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이리의 만경강 주변 지역에 대한 연구는 근대 지역 연구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식민도시 경협 속 농촌배후도시, 종교도시, 교육도시, 교통의 결절점으로 철도도시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 중이다. 또한 1950년 이리역 미군 폭격 사건⁶⁾과 1977년의 비극인 이리역 폭발사고는 일제

3) 김경남, 2018, 『제국의 식민지 교통 통제 정책과 이리 식민도시 건설』, 『지역과 역사』 43, 부경역사연구소.

4) 전라북도 권역의 음용수는 대체로 k-water 물을 사용하는데 익산시는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한 대아댐에서 흘러온 물을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하여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익산시 인구 28만여 명 중에서 약 70%가 이 물을 사용하고 있다.

5) 수원, 광주, 대전, 강경, 전주 등과 함께 전국 23개 지정면 가운데 하나가 될 정도로 이리는 신흥도시 대열에 진입했다.

6) 1950년 7월 11일 미군의 이리역 오폭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한국전쟁 발발 보름 후인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 사이 당시 전북 이리시 철인동에 위치한 이리역과 평화동 변전소 인근 만경강 철교 등에 미 극동 공군 소속 B-29 중폭격기 2대가 폭탄을 투하해 철도 근무자와 승객, 인근 거주민 등 수백 명이 집단 희생된 사실이 규명됐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에 의해 이식된 탐욕의 근대가 만든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주의의 모델 연구에도 주목되는 테마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일본인들은 1927년에 이민안내 홍보서 격인 『裡里案内』를 발간하고서 불과 1년 만에 『益山郡事情』이라는 책을 ‘또’ 발간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2. 조선 이주 안내서 『裡里案内』

1) 편찬 배경과 목적

일본에서는 개항 전후부터 조선 진출을 위한 안내 책자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소위 ‘조선 사정 안내서’는 러일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개인보다 단체를 중심으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일본인들의 조선 정착이 제도적으로 수월해지자 그들의 도한 이후 과정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 결과 1910년대에는 이리뿐만 아니라 강경, 조치원, 김천, 대전 등 일본인이 진입한 도시를 중심으로 조선 이주 안내서와 견문기 간행이 붐을 이루었다. 식민지 초기 역사와 통계의 정리라는 외피 안에는 결국 이민자들이 진입해서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고 조선인을 역사에서 지우고 일본인을 찬양하는 교묘한 신화 만들기로 치부되는 홍보와 선전이 이어진다.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발행된 오롯이 이리를 다룬 서적은 총 3권이다. 이리 지역에 일본인이 들어 온 지 10주년을 기해 1915년에 지역 언론인 야마시타 에이지(山下英爾)가 쓴 『湖南寶庫 裡里案内, 近接地事情』과 1927년에 개정·증보하여 재출간된 『裡里案内 一名 益山發展史』, 그리고 『益山郡事情』(1928)이다. 이러한 이리지역을 다룬 세 권의 메인 텍스트의 서지적 성격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이리지역을 다룬 텍스트의 특징

서적	『湖南寶庫 裡里案内 -近接地事情』	『湖南寶庫 裡里案内 一名, 益山發展史』	『益山郡 事情』
저 (편)자	야마시타 에이지 (山下英爾)	야마시타 에이지 (필명 山下春圃)	기하라 히사시 (木原 壽) [編]
출판사	惠美須屋書店(이리)	文化商會(이리)	조선인쇄주식회사(경성)

서적	『湖南寶庫 裡里案内 - 近接地事情』	『湖南寶庫 裡里案内 一名, 益山發展史』	『益山郡 事情』
발행 연도	1915년	1927년	1928년
갈래 및 찬	지리지 私撰	지리지 私撰	지리지, 官撰 (全羅北道益山郡廳)
서문	익산군수 박영철, 미에 히데후미 (三枝英文) 외	저자 본인 (山下春圃) 서문	후지이 간타로 (藤井寛太郎)
구성	16장, 215쪽	22장, 213쪽	2편, 350쪽
간행 목적	이리지역 정보 및 이민 정보제공	초관 개정·증보 확장 투자와 이민 장려	이리·익산 통계 정보 제공
사진	10매	45매, 인물 35인	사진 1매 지도, 각 面별 지도
광고	광고 있음 유지와 협찬자 소개	광고가 거의 없고 사진으로 홍보	협찬자 소개
정가	45錢	二圓	비매품
성격	통계와 서술 혼용	통계보다 서술	통계자료 중시
특징	이리 중심에 근접지 목천포·오산리·대장촌 ·옥구평야·황등·함열 소개	이리 중심에 황등·대장촌·오산리·목 천포·함열 소개	익산면 이리와 익산군의 18개면 상황 수록

(1) 유지정치⁷⁾를 보여주는 『湖南寶庫 裡里案内』

『湖南寶庫 裡里案内 - 近接地 事情』(1915)는 이리에 일본인이 진출한 시점부터 이리의 정치·사회·경제 등 당시 이리에 대한 많은 정보가 기술된 일종의 장소발견의 가이드북 성격을 띠고 있다. 판촉물은 아니지만 이 책에는 이리에 있는 여관과 상업공간의 광고가 잡지처럼 자리한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근대관광을 위한 ‘지라시(散らし)’는 아니고 조선땅 호남의 보고 ‘신도시에 진입해서 낮은 지가의 토지를 구입하여 부를 축적하는 기회를 잡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발대로 정착한 후 학교조합과 번영조합 또 재향군인회로 대표되는 성공한 지역유지로 자리잡은 이민 1세대의 무용담이 담겨 있다. 또한

7) 유지(有志)정치 : 번영조합과 학교조합 그리고 거대 농장주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이리지역의 도시행정 유지기능을 소수가 독점하는 통치 형태를 말한다. 지수걸은 ‘일제하의 지방정치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료-유지지배체제’, ‘유지집단’ 등의 용어를 자주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지수걸의 견해에 따른다.

그들이 이룩한 부의 흔적을 담은 농장과 회사 그리고 상점 등의 주소와 출신 그리고 업종 공개와 더불어 조선인의 저임금과 인프리를 소개하면서 이민 후발대가 와서 그 확장성을 구조화시키라는 선전 선동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문을 쓴 미에 히데후미(三枝英文)⁸⁾는 “이번 가을 총독의 시정 5년 기념공진회(記念共進會)를 기하여 한국에 오는 일본의 문필가이자 지도자인 각 신문·잡지 기자단원 등의 시찰에 맞이하여 이리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기념물이 없었으니...”라 남긴 서문에서 신흥도시 이리의 조바심을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성과물 혹은 홍보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리지역에 지배층으로 자리잡은 일본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욕구를 발현한 기록물이지만 많은 광고와 인물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은 이 책이 말 그대로 ‘가이드’에 머무는 한계와 그 증거이다.

이 책이 읍지의 성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측면으로 지역 유지로서 찬조자 명단과 광고가 30면이나 차지하는 점이다. 차례에 이어 협찬 광고를 초반부터 10매를 할애하고 있는데, 앞장 10면의 광고 2장 3장 사이에 6면의 광고, 중간 8면 광고, 후면 10면이라는 많은 광고를 보여주고 있다. 담배를 비롯하여 여관과 사진관, 소매점, 고물상, 여관, 생명보험, 과자, 건어 청과물, 맥주 광고에 주소를 보통 ‘湖南線 이리 영정’으로 표시한다. 주로 군산에 본점이 있고 이리에 지점이 있는 광고와 후루가와(古川)상점(아사히, 샷포로 맥주 광고 간판) 등을 싣고 있는데 『裡里案内』(1915)에 나타난 광고를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표 2. 『裡里案内』(1915)에 나타난 광고 분석

광고	내 용
초반광고 10쪽	담배로 시작해 맥주로 끝난다. 조선은행군산출장소, 사진관과 시계점, 의류, 식료품(양조, 장류, 과자, 건어), 석탄, 석유, 대사업, 생명보험, 여관 등 특징: ‘湖南線 裡里 榮町’이라는 주소로 통한다.
중반광고 6쪽(69-75)	당구장, 토목 건축업, 치과, 미곡상과 화장품, 수리조합과 학교장, 정미소 전면 광고, 삼례의 청부업, 이리역구내매점의 만두와 과자, 문방구, 신문잡지
후반광고 8쪽(161-168)	선남근업주식회사 영농 묘포, 미간지 간척, 비료농구, 특용작물, 자금대부, 통운, 고천상점에서 국제신탁을 비롯 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 등 각종 산업잡지와 여성잡지 판매, 구두와 양복점 등 각종 상점, 여관과 요리집, 목욕탕 신축
말미광고 10쪽(205-214)	정천농원, 여관, 인쇄소, 자전거판매, 용달, 청과와 건어물, 양식 요리집, 미곡상, 철도화물취급, 군산의 여관과 전북경원철도주식회사 소개

8) 미에 히데후미(三枝英文)는 야마나시(山梨)현 출신으로 中央대학 졸업 후 도쿄에서 정치 잡지를 발간했다. 이리에서 《경성일보》·《매일신보》·《조선공론》 등의 지국 주임 겸 미에(三枝)약점을 경영한다. 야마시타 에이지와 매우 돈독한 사이로 보인다.

이 『裡里案内』(1915)는 만경강 유역의 곡창지대에 자리 잡은 이리를 호남선 철도가 부설된 신흥도시로 소개하면서 1915년 당시 이리지역의 일본인은 2,035명, 한국인 1,367명, 외국인 40명으로 기록하여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각 직업에 따른 사업체와 인물을 소개하고, 각종 현황을 분석·정리하여 근대 호남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아주 많이 인용되는 저작물이다. 이 책은 일본제국의 植民이민이라는 국가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조선으로 진출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안내가 실린 책으로 조선반도 특히 호남지역으로 이민을 계획하거나 이민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안내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1915년 당시 이리에는 기차역은 있지만 은행도 없고 수도시설이 없었다. 전주, 군산, 김제에는 도서관이 있으나⁹⁾ 이리에는 도서관이나 중학교 그리고 공원도 없었다. 여관과 술집이 즐비하고 오락시설이 먼저 들어선 도시인데도 홍보의 과장을 보여주는 태도는 지적받을 만하다. 이 책이 역사서로 취급받기 어려운 지점이다.

(2) 광고 없는 『湖南寶庫 裡里案内, 一名 益山發展史』

1927년 야마시타 슌보(山下春圃)라는 필명으로 저술했고 100여 컷의 사진 화보 자료가 실려 있다. 일본어 저술로, 판형은 신국판으로 지역 업체 광고가 거의 없는 182쪽으로, 초판과 달리 특이점으로 광고와 협찬자 명단이 보이지 않는다. 부제로 ‘일명 익산발전사’라 하였고 내용은 초판을 보정하고 확장하였는데 당시 이리에 있던 출판사 文化商會에서 출간하였다.

출판의 목적으로 서문에서 ‘호남보고로 최고의 요충지인 이리 및 근접지인 황등·대장촌·오산리·목천포·함열 등을 널리 사회에 소개하고 그 유망한 사실을 잘 알리는 데 있다. 그리하여 조선땅에 이주의 뜻이 있는 일본인들에게 참고로 제공함과 동시에 발전 촉진의 일조가 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초판 성격과 같이 일본인 이주민을 위한 안내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9) 全羅北道, 『全羅北道要覽』(1927).

표 3. 『裡里案内』 1915년 판과 1927년 판의 비교

제목	『(湖南寶庫)裡里案内, 近接地事情』	『(湖南寶庫)裡里案内, 一名, 益山發展史』
출판 년도	1915년	1927년
페이지	172쪽	162쪽(광고 양의 현저한 감소)
편집· 발행자	야마시타 에이지(山下英爾)	야마시타 에이지(필명 山下春圃)
발행소	惠美須屋書店(익산면 이리)	文化商會(익산면 이리)
가격	45錢	2圓
사진	10매	95매(인물정보 사진이 많음)
광고	총 24쪽(초반 10쪽, 중간 6쪽, 후미 8쪽)	1쪽(매월당 등 5개 상점) 광고가 거의 없음
출판 목적	1915 시정5년 기념공진회 신문잡지기자 단원의 기념물 ¹⁰⁾ , 이리를 널리 알림	조선땅에 이주 희망 일본인들에게 참고로 제공, 발전 촉진의 일조
서인	익산군수 박영철 외	저자 서문
총설	풍토와 기후 연혁 호구와 인구	1925년 말 일본인 887호 3,947명, 한국인 1,981호 9,263명
교육	이리공립심상고등소학교 이리공립보통학교	이리관립농림학교 이리공립고등여학교
종교	동본원사 포교소 일련중, 이리신사(1913)	동본원사 포교소, 日蓮宗 榮罔寺, 이리신 사, 천리교, 기독교
위생	위생조합, 도살장과 피병사 공동묘지, 의 원과 치과, 양점과 목욕탕	이리철도병원 등 의원 9개(치과의 3인), 산 과 5인
운수 교통	전주군산1등도로, 호남철도, 전북경편철 도, 만경강 수운, 자동차, 자전거 등	자동차 1대, 인력거 21대, 자전거 513대, 우 마차 38대, 화물차 132대
통신	이리우편소	이리우편국
수리	임익, 임익남부, 전익수리조합	임옥수리조합, 대아리저수지 수로사업 이후 땅값 앙등
농업	일본인 경지면적은 5,000정보. 오하시 농장, 不二농업주식회사, 이마무라농장, 가타기리농장, 白南信농장 지부	경지의 정확한 가격 및 수확량 제시, 양잠 과 면화, 오하시농장 등 30개소 소개(조선 인 농장 6개소)
금융	이리우편소, 익산금융조합 아직 은행이 없고 이타이 신조(板井信藏) 등 금융대부업자 7인 소개	익산은행, 동척이리지점, 삼남은행이리지 점 전북상사, 이리금융조합, 익산금융조합 외 13개 질점(質店)
신문 잡지· 대면업	재판소가 없이 대면업자가 활약 湖南日報지국주임으로 山下春圃 全北日日新聞의 田中富次郎	군산일보, 전북일보, 경성일보, 조선신문, 호남일보, 부산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판조일신문, 대판매일신문
오락계	철도구락부와 당구장, 오카하시 슈타(岡 橋忠太 ¹¹⁾)개설 극장 이리좌(裡里座)	철도·東拓구락부·裡里座·당구장·裡 里心友會. 공회당이 없음

제목	『(湖南寶庫)裡里案内, 近接地事情』	『(湖南寶庫)裡里案内, 一名, 益山發展史』
여관 및 요리점	메이지(明治)여관, 아사히야(朝日屋)여관과 요리점과 요정 소개	설비가 불완전, 불결 또는 불친절. 9개 여관, 12곳 요리점과 음식점
찬조자	이완용, 이두황 등 123명 혹은 기관 표시(지역 조선인 12명)	찬조자 없음
장래 소견	이리 발전책으로 운하 건설	이리 농장주의 이리 거주 호소, 이리의 지명변경, 거주자의 일치협력 강조, 물 부족 강조 등 ¹²⁾
특징	통계자료를 표를 사용하여 설명	통계자료를 문장으로 서술

『裡里案内』는 넘쳐나는 인구나 지역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본토 내의 일본인 이민을 위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위한 명망가의 출신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담은 안내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소개를 넘어 네트워크 즉 인맥쌓기라는 일본인 특유의 모습을 보여준다. 거기다 이 도시를 지배하는 것이 일본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선발대에게는 성공에 대한 인정욕구의 반영과 내재적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고 개인으로서는 미래방향에 대한 목표의식, 식민당국으로서는 성과 창출 그리고 후발주자들에게는 산업활동과 고용의 기회를 보여준다. 치적 홍보 위주 이기에 법규 같은 법적 효력에 관한 문서들이 없다. 예를 들면 도시의 의결과 집행기관인 번영조합에 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편찬자의 법률적 지식의 부족 혹은 이 책을 소비하거나 향수하는 사람 위주로 지어진 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제 2권에서 필명 山下春圃를 사용한 야마시타 에이지는 12년 전에 저술한 책에서 다루지 못한 이리의 안내에서 저술가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리가 분발하라는 희망섞인 발전구상을 소신 있게 밝힌다. 이리 지역에서 따로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것도 또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문이 있다 해도 농장주를 비롯한 유지들은 주요한 광고주들이기에 함부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리지역의 집단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야마시타 에이지는 두 번째 책자 『裡里案内』(1927)에서 책의 제목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 즉 안내를 넘어서 비판과 제언의 포즈를 취하고 있기에 이민 선발대 즉 조합을 통해 도시를 이끌어 온 유지들의 분노를 사게 된다.

10) 『裡里案内』(1915), 3쪽.

11) 《朝鮮新聞》 取次역.

12) 읍지의 성격과 다르게 매우 비판적인 논조이기에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12년 전과 달리 시정 업무를 기획 실행하는 집단이라 할 유지정치에 반하는 간섭집단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민생활백서로서의 실용적 안내서는 사실 수용자 혹은 사용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리지역으로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기호와 시선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민 1세대의 관점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지리와 교통 그리고 저렴한 지가(地價)를 표상으로 내세우면서 새로운 이민자를 끌어들이는 마당에 1세대 유지와 권력자들은 단결하라 혹은 “거대지주는 이리에서 거주하라”는 제언은 도전이었다. 유지정치란 일본인 특유의 봉건제도 상의 다이묘(大名)들의 절대적 권력행사와 유사한 모습으로 사무라이 대신 헌병대가 상주하고 농민과 상인 그리고 수공업자가 이를 떠받치는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나타난 것인데, 야마시타 에이지를 비롯한 간섭집단의 도전은 이민 1세대로서 유지의 대표 격인 오하시와 후지이 간타로 등 유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1년 만에 재발행된 지방지 『益山郡事情』

『益山郡事情』(1928)의 발간은 『裡里案内』(1927)의 발간 후 1년 만에 진행되었다. 보통 지방지의 발행은 한 세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유지하는데 지방사든 향토사의 영역이든 1년 만에 새로운 책을 발간하는 것은 예산과 사료수집과 정리 등 많은 수고로움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裡里案内』(1927)는 발행자가 개인이고 『益山郡事情』(1928)은 전라북도 익산군청인 반면, 지방지의 성격상 자주 등장하는 통계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하라 히사시(木原 壽)가 편찬한 『益山郡事情』(1928)은 1920년대 전라북도 익산군의 익산면을 비롯한 18개 읍면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록한 군지(郡誌) 성격의 지역 인문지리서적이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에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시에 해당하는 익산군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당시 조사한 사항으로는 각 읍면의 인구수, 행정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종교기관, 양곡 생산량 등이 있다. 익산군청 촉탁인 기하라 히사시가 1928년에 그 통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책의 표제는 세로글씨 한문 인쇄체로 ‘益山郡事情’이라 되어 있다. 일본어로 쓰였으며 삽화와 면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쇼와 3년(1928) 12월 26일에 인쇄 납본을 하고 12월 29일에 발행하였다. 발행소는 전라북도 익산군청이고 255쪽 비매품으로 경성부 조선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하였다. 책의 앞부분에는 추천사

와 머리말, 편찬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 인사, 1926년 쇼와(昭和) 일왕의 등극과 관련하여 地方 賜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 등이 적혀 있다.

편자 서문 바로 뒤에 협찬한 49명의 유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리와 익산 지역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농장주로 대표되는 지역유지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가 조선의 비료왕 다키 구메지로(多木久米次郎)이고 뒤를 이어 대장촌의 농장주 이마무라 이치지로(今村一次郎)가 나오는데 이마무라의 양복을 입은 커다란 프로필 사진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황등의 농장주 가타기리 가주쵸(片桐和三) 등이 뒤를 잇는다. 49명의 협찬자 가운데 일본인이 43명, 한국인은 6명뿐인데 이는 마치 도시의 권력 순위로 느껴진다. 다음에 익산군내 지방 사찬(賜饌) 참여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지포함 모두 117명이 등장한다. 물론 거대 농장주들의 협찬과 농장의 사이즈에 따른 순서로 보인다. 다음으로 농장의 지배인과 이사들이 소개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미소와 양조업 청부업자들이 뒤를 잇고 있다. 농장주 파트와 소방조 파트에서 유지들은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역의 소방조의 반두(班頭)로 공적인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의 정점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타이 신쵸(板井信藏)가 이름을 올렸고 황등에는 가타기리가 이름을 올린 것은 이민 1세대가 저물고 보다 젊은 세대들이 이리지역의 주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2) 이리의 언론과 출판문화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 일본인 엘리트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언론사 관련 기록이다. 전방에서 관료와 헌병이 행정을 통치한다면 문화적으로 신문 지국과 기자들은 의미를 생산 배포 또는 통제하는 자들이었다. 배포의 수단인 신문과 잡지 그리고 출판물일 수밖에 없었다.

『裡里案内』(1915)의 기록을 보면 당시 이리에서 가장 독자가 많았던 신문은 《全北日日新聞》¹³⁾으로 다나카 도미지로가 지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불어《群山日報》,《湖南日報》,《京城日報》,《朝鮮新聞》,《木浦新報》등이 있고 일본에서 오는 신문은 《大阪朝日新聞》,《大阪毎日新聞》두 가지였는데 이는 오사카 직항으로 실어나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잡지로 《實業之日本》,《婦人世界》 등이 있으며 전북, 군산, 호남은 각 지

13) 1912년 5월 14일 오가와 유조 사장과 한국인 부호들의 참여로 창간되면서 전주 최초의 일간지가 된 《全北日日新聞》은 1920년 《全北日報》로 바뀐다. 1914년에 『全羅北道案内』를 발간하고 1933년에 『全北案内』를 발간한다.

국을 두고 통신, 판매, 광고 모집 등의 사무 등에도 경영하고 있는데 상점에서 신문과 잡지 중개를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에 보이는 언론기관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1915년 당시 이리지역 언론 관련 상황

신문명	관리자 및 중개상점	비 고
전북일일신문(全北日日新聞)	지국 주임 田中富次郎 ¹⁴⁾	미국중개업, 여관 운영
군산일보(群山日報) ¹⁵⁾	지국 주임 山本希代士	宇津木初三郎 裡里支社특파원
호남일보(湖南日報)	지국주임 山下春圃	『裡里案内』 저자
경성일보(京城日報)	취차 石井兵司	
조선신문(朝鮮新聞)	취차 岡橋忠太	이리좌 경영
목포신보	취차 橫山상점	
大阪朝日新聞 大阪毎日新聞	취차 古川상점	實業之日本, 잡지 『부인세계』 취급

이리에서도 일본인들의 성공적 무용담과 후발 조선 이민을 위한 홍보역할을 담당한 앓은 지방지(地方誌)가, 각종 신문 및 잡지와 함께 다채로운 식민지 출판문화를 연출하였다. 이리에는 문화상회(文化商會)나 에비스야서점이 자리해 다수의 서적을 출간했는데 이리에서는 전문 농촌잡지로서 월간지 《朝鮮之産業》이 1929년 5월부터 1936년 3월까지 발행되었다. 이리농림 출신들의 구독과 수많은 농장 사무실에서의 광고 수입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리지역의 우즈키 하츠사부로(宇津木初三郎)는 군산일보 이리지사의 주임 기자로서 『전라북도발전사, 일명 전북안내』(1928), 《조선지산업사》에서 발행한 『전북산업사』(1930),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1934)의 저자이다. 여기서 특히 발간처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인 우즈키를 매개로 당시 신흥도시 裡里는 인근의 군산과 지역적 연관을 강화하며 지역 출판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다.¹⁶⁾

14) 『裡里案内』(1915)는 ‘田中富次郎이 명치 39년(1906) 이곳에 온 이래 시중일관, 이리의 발전에 힘쓰고, 그 공헌하는 곳이 다대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914년 《全北日日新聞》에서 『全羅北道案内』를 발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5) 1904년에 최초로 《群山日報》가 주간지로 발행되다가 1907년에는 《한남일보》를 흡수하여 일간지가 되었다. 이후 1919년에는 『實業の朝鮮』이란 월간 잡지도 발행되는 등 약 18개의 신문지국 등이 생겨났다.

16) 정승진, 2013, 『開發農政의 宣傳과 ‘同化主義’ — 全北 裡里발행 『朝鮮之産業』(1929~1936)의 분석』, 『대동문화연구』 제84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당시 인쇄문화의 특성상 한 권의 기본 틀(위치, 지세, 연혁, 기후)에 새로운 통계와 해석만 변환 삽입하면 새로운 책으로 편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언론인들은 상당한 권력이었다. 저널리스트인 우즈키 하츠사부로는 필명으로 宇津木蕉雨인데 ‘조선의 寶庫’라는 표현도 그가 구사한 것이다. 『裡里案内』는 야마우치 사토루(山内 哲)가 경영하는 문화상회에서 출판한 책으로 이리농림 부근에 출판회사가 자리했다. 발행인(사장)의 교체와 함께 발행소도 기존의 이리 진곡 인쇄소(眞谷印刷所)에서 군산의 실업지조선사(實業之朝鮮社) 인쇄부로 바뀌었고 잡지의 유통은 “지방유지의 열렬한 지원하에 순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¹⁷⁾

이리지역은 자체 내의 신문발행은 없었지만 교통의 발달로 일본과 경성의 신문이 매일 당도하는 지역이었다. 또한 서적과 잡지 그리고 사진엽서를 발행할 정도의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출신지의 인연과 맥락을 증시하는 일본인 유지들의 상업과 업적의 홍보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언론과 출판이 상당히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이 이리에 들어온 지 40년 동안 오롯이 이리지역을 담은 역사 지리 관련 서적이 3권밖에 출간되지 못하였고 전주나 군산에 비해 부사(府史) 같은 공식적인 도시역사 서적은 출판되지 못했다.

3. 유지정치와 裡里의 약진

1) 유지정치와 이리의 성장

이리는 1917년 지정면이 되고 1922년에는 익옥수리조합에서 만든 대간선수로가 개통되고 이리농림학교가 설립한다. 큰길가에 식산은행과 동척지점이 들어서고 도매점이 줄을 이었고 여관업과 식당이 늘었다. 조선총독부내무국이리 토목출장소가 들어서고 전라북도종묘장과 전매국출장소 그리고 곡물검사지소가 속속 들어섰다. 1세대들은 늙고 사망하거나 새로운 세대들이 이리지역에 진입했는데 주로 재향군인회 멤버들이 많았다.

이리의 초기 도시계획을 이끌던 제1기의 조합관리자들이 퇴장하고 제2기의 조합관리자들이 보이는데, 요코미치 다다노츠케(横道只之助)¹⁸⁾를 비롯하여 중

17) 결국은 ‘협찬’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합평의원은 사토 유키사부로(佐藤幸三郎)·모리시마 소타로(森島莊太郎)·오노 신기치(大野新吉)·이노가이 요(猪飼 要)·구라타 미츠조(倉田光藏) 등으로 군 출신 혹은 금융계 인사, 언론인, 의사, 교장 등 지역의 행정 금융 교육 언론인이 망라되었다. 이들의 특색으로는 조선에서의 군대를 제대하고 재향군인회원으로 이리에서 활동하면서 금융대부업으로 성장한 이들이 많다. 익산면 초대면장을 지낸 이타이 신조(板井信藏)¹⁹나 아오타 다케치(靑田竹治)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들은 농장 지배인에서 독립하여 농장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이리의 유지대열에 속했다. 이타이 신조는 제국재향군인회 이리분회 분회장을 맡고 이리학교조합관리자 이리농림학교 설립위원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리지점 유치 위원에 관선 도회의원을 지냈다. 또한 다케치는 화성농장 지배인²⁰인데 1912년 이리분대장에 보임되어 경무(警務)로 일하다 1919년 퇴역한 후 백남신(白南信)²¹에게 화성농장²² 경영권 일체를 넘겨받아 전라북도회 의원, 학교조합의원, 이리금융조합 조합장, 재향군인회호남지부 평의원 등의 공직 및 전북 축산, 서울고무공장 등의 중역으로 활동했다.

(1) 이리관립농림학교의 설립

이리농림의 설립목적은 조선교육령²³에 의거하여 농림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1922년 이리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지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설립되었다. 일본인 지주들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식민지 농업경제에 필요한 인재를 얻기 위한 학교설립 운동을 하였고, 이에 14만 6천 엔의 학교설립기부금을 조성하였으며, 국내와 일본의 요로에 청원을 통해²⁴ 결국 이리에 5년제 전국 유일의 감중학교 출현을 보게 된

18) 야마시타 에이지와 가까운 관계로 『裡里案内』(1915) 서문을 썼다.

19) 坂井信藏는 福岡현 출신으로 裡里邑日出町에 거주하고 일본 陸士 졸업후 러일전쟁에 중대장으로 출정한다. 四級金鷄勳章을 수상하고 大正3年 予備役 陸軍少佐로 내한하여 裡里에 농장을 개설한다.

20) 『朝鮮功勞者銘感』(1935), 248쪽.

21) 갑오농민전쟁 당시 전주 진위대 책임자 백남신의 아들 백인기는 화성농장을 짓고 대만전쟁과 러일전쟁을 다녀온 후 이리현병분대장을 지낸 예비역 대위이자 경무인 靑田竹治(1876생)를 지배인으로 삼는다.

22) 백인기의 며느리 이운성 여사가 1946년 설립한 당시 이리의 남성중고등학교의 모태가 바로 화성학원이었다.

23) 일제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는데 1912년 전통도시 금마와 함열에 공립 보통학교가 4년제로 개교한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본제국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황국신민을 만들고, 국어(日本語) 보급 등 한민족을 일제에 동화시키겠다는 계산으로 한국역사 과목은 아예 제외시켰다.

것이다. 1924년 4월에는 일본인 여학생들이 다니는 이리공립여자고등학교(裡里公立高等女學校)가 개교하는데 수업연한은 4년이였다. 구체적으로 이리농림의 교육지침 속 덕육(德育)분야에는 경신(敬神)²⁵과 독서단속 등이 행해졌다.

(2) 유지들의 기차역 사유화

이리지역의 굴지의 기업형 농장주들은 이리역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조합의 유지로 살면서 공공재인 이리 주변의 군소 열차역을 사유화했다. 물론 주변의 농민들도 열차역을 이용했지만 농장주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집하하고 타 지역으로 보내는 거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북경원철도 역인 이리의 동쪽으로 첫 번째 역인 구이리(東이리)역의 오하시, 대장촌의 호소카와, 동서로 이어지는 군산 쪽으로 향하는 오산역은 후지이 간타로의 불이농장과 지경역은 구마모토와 시마타니 농장이 사용했다. 역 앞에는 어마어마한 창고가 설치됐고 가까이는 작은 타운이 들어섰다. 이리지역에 생산된 50만 석에 가까운 벼들은 이리역을 비롯한 동서남북의 작은 역에 집산되었다가 군산으로 실어날랐다. 거대 농장주들은 농장에서 생산한 쌀을 직접 군산으로 실어나르기 전 현미 혹은 정미로 제공한 정미업(精米業)자들 역시 정거장의 운송체계를 통한 큰 이득을 보았다. 이들 기업형 농장주들의 공간구획과 정거장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기차역 독점과 농장주

열차 노선	역명	지역유지, 농장	특징
호남선 (이리 남북)	함열역(상행)	다키(多木)농장	조선의 비료왕
	황등역(상행)	가다키리(片楨)농장	황등 석산개발
	이리역	동양척식회사, 익옥수리조합	정미소 산재
	부용역(하행)	하시모토(橋本) 농장	김계 농장재벌
전라선 (이리 동쪽)	동이리역	오하시(大橋)농장 화성농장(백인기)	조선의 토지왕
	대장촌역	호소카와농장, 이마무라농장	조선의 이상촌
	삼례역	이엽사(二葉社)농장	박기순 농장
	동산역	미쓰비시(三菱) 계열	전주 입구 東山村
군산선 (이리 서쪽)	오산리역	不二興業株式會社, 眞田農場	후지이 간타로
	지경(地境)역	시마타니(島谷)농장 구마모토(熊本)농장	

24) 마츠모토 다케노리, 앞의 글, 49-56쪽.

25) 경신(敬神)은 일본제국주의에서 신봉하는 國家神道로 神社참배 등이 교육현장에서 행해졌다.

영주급 지도자 밑에 헌병이 지켜주는 보호망 속에서 농민과 상인 그리고 수공업자가 하나의 타운을 이루는 형태로 동서남북으로 갈라 각각 이리지역을 지배했다. 1927년 식민도시 이리는 조선의 45개 도시 중 26위를 차지할 정도로 외형적 인구성장²⁶⁾의 모습을 보이지만 1927년 야마시타 에이지는 『裡里案内』를 통해 이리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성 있는 주장 즉, 일본인 농장주는 조선에 거주하라는 외침과 함께 이리지역의 일본인 이민사회는 균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3) 도시발전과 금융기관

야마시타 에이지는 『裡里案内』(1927)를 통해 토지의 발전을 계획하려면 먼저 제일로 금융기관의 충실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파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개인금융업자에게 가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융통하는 참담한 광경이었다.’라고 서술한다. 작금은 식산은행을 비롯한 은행이 들어오면서 토지업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었지만 중산계급 이하 계층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금융대부업을 통하여 이리의 경제계가 발전하였음을 자랑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이리지역의 금융기관과 대금업자를 정리하면 <표 6>와 같다.

표 6. 이리의 금융기관과 대금업자²⁷⁾

명칭	창립 년 월	1927년 중 대출금액	동 회수금액	1928년 3월 현재 대출금액	동 현재 예금
동척	1908.12.28	7,818,800엔	4,804,566	7,831,670	미상
식은	1918.10.1	6,937,450	7,354,374	5,774,670	1,714,359
상은	1924.4.1	4,490,104	4,320,321	584,739	656,617
익은	1913.7.17	163,902	156,675	148,539	111,986
대금 업자	全北상사주식회사, 内外土地주식회사, 窪田好助 금융부, 櫻谷質本점 외 13개의 질점 ²⁸⁾				

26) 제1위 경성(306,363人), 2위 평양(109,285), 3위 부산(106,323), 4위 대구(77,263), 5위 인천 (53,741), 10위 목포(27,521), 12위 군산(23,071), 15위 전주(21,851), 22위 대전 (15,904), 그리고 제26위 이리(14,735) 순이다. 木原壽 『益山郡事情』(1928).

27) ‘상은’은 상업은행이리지점을 가리키나 내용은 당시(1928.4.18 조사) 삼남은행이며, ‘익은’은 익산금융조합을 가리킨다. 이리금융조합은 ‘1928년 11월 30일까지 회답이 없어서 기입에 빠졌다.’라고 『益山郡事情』에 보인다. 표 아래의 대금업자 내용은 『裡里案内』(1927)에서 발췌함.

28) 질(質)은 전당물로 질점(質店)은 전당포를 의미한다.

『裡里案内』(1927)에 따르면, 전북상사주식회사나 내외토지주식회사는 유수의 상업회사였지만 대부업을 겸했고 15개의 대부업자의 모습이 보인다. 말만 금융대부업이고 실제로는 담보물품을 저당하는 전당포였다. 에히메(愛媛)현 출신 시로오 카코오고(城岡幸吾)는 헌병으로 호남선 공사 당시 이리분견소장을 하면서 토지매수 후 지가폭등으로 많은 수익 후, 토지경영과 금융대부업을 하는 자였다. 이타이 신조 역시 금융대부업자로 출발했는데 예비역 보병 소좌로 토지의 경영 및 토지담보의 금융대부업을 하면서 제국재향군인회 이리분회장에 추대, 이리청년회 고문을 지냈다. 군인 출신으로 정8위 훈6등의 위훈을 가진 스즈키 이치사부로(鈴木一三郎)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이 금융대부업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등 부동산과 대금업자들의 세상이었다.

2) 이리지역의 언론

(1) 사진 화보 속의 이리

『裡里案内』(1927)에는 100여 장의 사진 화보가 실려 있다. 213쪽 중 46쪽이 화보(사진)이다. 1935년에 간행된 『군산부사(群山府史)』에도 약 50여 장의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면 상당히 제작비가 많이 든 책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 드러난 사진 속의 신흥도시 이리의 모습은 반듯한 도로와 전신주, 서양식의 모던한 은행건물과 기와를 인 일본식 오카베 주택들을 보여준다. 동산동에 자리한 이리신사와 익옥수리조합제수문은 웅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리번영조합의 조합원들의 금배(金杯)하사 기념촬영을 필두로 노년이 된 이민 1세대, 이타이 신조, 백인기농장 지배인 아오타 타케치, 오기 요네츠케의 저택과 『裡里案内』의 저자 야마시타 본인의 모습도 보인다.

도시를 선전할 홍보잡지의 성격을 드러내는 철도병원, 천성당의원, 양복점과 백화점, 그리고 이리역 앞 거대한 2층 건물인 靑木(아오키) 레스토랑이 보인다. 이리 북부에 자리한 황등에는 소위 황등제라는 요교호와 황등수리조합 그리고 황등석산과 황등금융조합, 그리고 편동농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리 남서쪽의 대장촌의 후작 호소카와농장과 이마무라농장을 담은 사진에서 일본인들은 일본 기모노와 무사 복장을 하고 사진을 찍는 등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인다.

특이한 점은 국가기관인 조선총독부 토목국 이리출장소, 군청과 경찰서 등 공적기관은 소박한 사이즈를 보여주는 반면 금융기관인 식산은행이리지점, 동

양척식회사이리지점, 이리금융조합, 익산금융조합은 모던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시농장 등은 일본전통의 성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행정기관보다 금융과 상업에 종사한 기관들이 훨씬 모던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준다.²⁹⁾

(2) 신문지국과 언론인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 일본인 엘리트 중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했다. 『裡里案内』(1927), 『益山郡事情』(1928)에 나타난 언론기관은 1932년 발간된 『익산군지(益山郡誌)』에 나타난 언론사와 동일하다. 『裡里案内』(1927)에는 《군산일보》³⁰⁾ 이리지사장 미나가와 기요시(蜷川清), 잡지《朝鮮之實業》 이리 특과 기자 우즈키 쇼우(宇津木蕉雨)와 《전북일보》³¹⁾ 이리지사장 아라키 겐지(荒木源二), 《조선신문》이리지국장 우에자키 츠네요시(上崎恒義), 《京城日報》 호남지국장 후모토 시게키(麓茂樹), 《호남일보》 이리지사장으로 바바 츠네오(馬場恒雄) 등이 이리의 언론인으로 실려 있고 이리에서의 신간회 운동을 주도한 동아일보의 배헌³²⁾과 중외일보의 임혁근³³⁾이 이채롭다. 결국 『裡

29) 1918년에 건립된 조선식산은행이리지점은 제일은행을 거쳐 현재 스탠다드 차타드는 행으로, 이리금융조합은 NH농협은행 익산중앙지점 건물로, 동척이리지점은 최근까지 익산IBK지점 등 금융건물로 사용되었다. 동일 계통회사는 아니지만 100년이 지난 작금에도 금융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30) 『군산부사』(1935)에 의하면 1903년 군산에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은 《군산신보》로 확인된다. “1906년 여름 오가와 유조가 경영을 맡았고,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금난을 겪은 것” 기록되어 있다. 군산신보는 훗날 《군산일보》로 바뀌어 전북 최초의 일간지로 변화했다.

31) 1904년 12월 25일 창간된 《全北新報》는 한일어 혼용 주간지였다. 이후 1912년 출발한 《全北日日新聞》은 1920년 《全北日報》로 바꾸었고, 1941년 6월 1일에 《東光新聞》과 《群山日報》가 통합되어 《全北新報》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되었다.

32) 배헌(裴憲)은 1896년생. 익산에서 태어났다. 1913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졸업 후에는 길림성(吉林省)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와 연락하는 임무와 군자금 모집, 노령(露嶺) 자유시(自由市)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24년 귀국한 배헌은 『동아일보』 기자가 되었으며, 1927년 6월 신간회(新幹會) 익산지회 창립을 앞두고 격문을 선포하였다가 간부 8명과 함께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33) 익산출신 임혁근(林赫根)[1898~1934]은 1924년 1월 1일 익산읍에서 조용관(趙容寬)·임종식(林宗植)·김영휘(金永輝) 등 9명과 함께 사회주의 비밀결사 갑자연구회(甲子研究會)를 조직한 뒤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군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7년 신간회(新幹會) 익산지회의 창립총회 문제로 배헌(裴憲)·임영택(林榮澤) 등과 함께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중외일보』이리지국장이었던 임혁근은 『동아일보』이리지국장 배헌, 『동아일보』 전주지국 기자 김지수(金智洙), 『조선일보』 전주지국 기자 하준기(河駿基)와 함께 5월 7일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1개월 후 풀려났다. 그해 7월에 다시 체포된 임혁근은 1930년 12월 경성지방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案内』(1927)를 통해 이리의 문제점과 발전책을 제시한 후, 지역유지들의 미움을 산 야마시타 에이지는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

4. 일본인 사회의 균열과 침체

1) 이민사회의 균열

(1) 인구유입과 이리읍 탄생

야마시타 에이지는 1927년에 발행된 『裡里案内』 개정·증보판 서문을 통해 부산에서 경부선 북행열차로 6시간 만에 호남선의 분기점인 대전역에 도착해 호남선으로 갈아타면 열차는 가수원·두계·연산·논산·강경·함열·황등을 지나 2시간 만에 ‘호남지방에 있어서 최고의 요충지 규모가 굉장한 대 정거장’ 이리에 도착한다고 접근성을 피력한다. 아울러 이리에서 東京·大阪·福岡, 중국의 北京·長春·大連 등까지 거리를 밝히면서 “이 책에 의해서 기업자나 시찰자 등에게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면서 투자와 이주 등을 권하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1917년 익산면은 영등포·대전 등과 함께 철도요충지로 지정면이 된다. 10년이 지난 1927년에는 이리를 중심으로 한 익산면 인구가 1만4천 명으로, 특히 일본인이 3천5백 명 가까이 거주하는 신흥도시로 성장한다. 1925년부터 시작되어 10년에 걸친 만경강직강공사를 중심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리의 인구유입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질의 기관이나 산업적 측면의 성장은 아니었다. 1931년 익산면 일대는 읍으로 승격되는데 그 명칭을 이리역 주변의 인구집중지역인 이리를 사용하여 裡里읍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리역이 설립된 1912년부터 통계에 잡힌 1943년 이리거주 인구 및 일본인 연도별 현황은 <표 7>과 같다.

치르던 중 1934년 6월 30일 사망하였다.

표 7. 1912-1943년 이리거주 인구 및 일본인 연도별 현황

연도	총인구	일본인 호구수		연도	총인구	일본인 호구수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1912	1,650	270	946	1927	14,012	920	3,473
1913	1,383	300	946	1928	15,076	926	3,731
1914	2,744	437	1,506	1929	15,684	955	3,499
1915	2,298	550	1,893	1930	17,803	958	3,789
1916	2,886	443	1,434	1931	18,098	934	3,748
1917	3,860	616	1,833	1932	17,392	959	3,939
1918	3,963	618	1,844	1933	17,321	958	3,914
1919	3,865	617	1,840	1934	18,515	1,004	4,252
1920	4,054	402	1,447	1935	19,807	1,024	4,226
1921	4,942	591	2,281	1936	20,519	1,040	4,150
1922	5,143	555	2,114	1937	21,335	1,126	4,163
1923	6,127	658	2,445	1940	22,347	1,050	4,390
1924	7,089	743	2,817	1941	22,916	1,217	4,279
1925	8,476	853	3,815	1942	25,156	956	4,259
1926	14,735	980	4,182	1943	27,463	943	4,274

*1926년 통계는 1925년에 비해 총인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26년 통계부터 이리 통계를 익산면의 전체 인구에 포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이명진, 『전북 이리의 식민지배 체제와 저항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년, 78쪽을 재인용

(2) 상수도 문제와 학교 유치 실패

일본인들의 이리 진출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서 조합과 지연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를 통한 공고한 이민자사회는 균열을 맞게 된다. 이리의 이민 1세대 들은 호남철도의 개통 이후 지역개발에 진력하여 도로의 신설 수리, 신사(神社)의 건설, 교육·산업·위생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도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이나 제도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의료체계의 낙후, 건축기술의 한계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호남평야의 허허벌판에 설립된 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도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교육열이 높은 이들을 위한 이리농림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는 신용이 좋지 않은 금융불량자를 위한 ‘질옥(質屋)’이라는 이름의 전당포들이 즐비했다. 거기다 위생과 복지의 최우선 문제인 상수도 설치는 오래도록 이리의 숙원사업이었다. 수원지 확보 등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공공을 위한 수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은 초기 도시를 건설한 유지

들의 에너지와 공공성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27년 『裡里案内』에서 세계의 각국을 유람한 사업가 도이즈미 세이키치(豊泉政吉)³⁴⁾는 실명을 공개하면서 ‘일본인은 반도에 은거해야’³⁵⁾라고 주장하면서, 이리의 발전이 늦음을 한탄한다. 또한 도시의 명칭문제를 두고 ‘裡리는 이전 狸里’ 등으로 종종 잘못 쓰고 있다면서 지명(地名)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게 되고 사회갈등으로 야기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도시구조는 산과 산 사이 강이 흐르는 분지 지역에 입지하는 이유로 수원을 가지지만 이리는 허허벌판에 형성되어 물이 부족한 도시였다. 개항장 군산은 거류민단이 주체가 되어 1913년 상수도건설공사가 시작³⁶⁾되어 1915년 준공되었지만 이리는 취수한 물을 사용자에게까지 공급하는 시스템 문제³⁷⁾를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했다. 도이즈미 세이키치는 상수도의 부족을 지적한다.

우리 이리의 큰 결점은 이른바 옥에 티로 물에 있다. 단 음용수는 질 좋고 또 풍부하다고 해도 대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상수도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 실현을 얻어 가까운 장래에 완성된다고 해도 이 때문에 이리로서 현실적으로 크게 불리함을 보이고 있다. 나는 나이 들어 시민 각위에 대하여 대갈일성으로 경고하려는 것은 물이 있다고 해도 상수도 혹은 이리 수리조합의 계획으로 수리 편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수백 공업의 발흥과 연돌의 숲을 보게 되어, 일대 도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³⁸⁾

총독부는 공적기관 설립에 지역의 경쟁을 도모했다. 각 지역의 유지들은 기성회를 조직하고 청원과 로비를 통해서 지역의 과제 해결해갔지만 도시 인프라로서 수원 부족이나 상수도 하수도 등 갈 길이 멀었다. 일본인이 이리에 입

34) 『조선의 인물과 사업, 호남편』 제1집 230쪽에 의하면, 1885년생 東京市 출생으로 東京 開成中學校 졸업 후 싱가포르로 건너가 瀧谷商店에서 근무하다가 南洋諸島를 전전하여 약과 잡화를 판매함. 이후 수마트라에서 東洋商會와 東洋貿易株式會社를 창립하여 고무와 야자를 재배하고, 멕시코에서 수코모스광산 등을 경영하는 한편, 北米證券株式會社 社長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함. 1925년 이후 군산과 이리에서 잡화점 豊泉洋行을 경영하였다.

35) 후지이 간타로의 주소지는 京城府 旭町 1丁目이었고 오하시 요이치와 호소카와 등은 아예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36)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상수도 건설사업의 전개 과정』, 343쪽.

37) 이리는 급수 구역 내 도시인구 22,347명에 급수인구 7,466명.

38) 『裡里案内』(1927), 72쪽.

성한 지 30여 년이 되어서야 이리에는 상수도가 완성된다.

1926년 이리지역 유지들은 익산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이리에 유치하는 것을 전라북도당국 도평의회에 진정하기로 결의하고 진정위원(靑田竹治, 扇米助, 文炳玉, 李源鎔)을 선출한다. 또한 관립사범학교 설치기성위원을 선출하여 청원하였지만 두 학교 모두 전주로 넘어가게 된다.³⁹⁾ 지역 발전을 위한 야마시타 에이지를 비롯한 차세대들의 고언은 갈등을 야기했다. 야마시타는 『裡里案内』(1927)를 통해 이리의 단점과 결점 그리고 당면문제를 이야기하고 현안의 완성유무의 문제점을 들면서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면서 이민 1세대 기득권자들을 공격한다.

이리관으로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최근 문제인 농사시험장, 연초전매국 분공장, 또 장래에 속하는 중학교도 특히 병영(兵營)과 같은 조선 호남으로서 이리를 들어 달리 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어지러움을 보이고, 실정·실책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의심된 바가 있다.⁴⁰⁾

‘제16장 이리의 장래에 대한 소견’에서 도이즈미 세이키치(豊泉政吉)는 “거주자의 일치협력을 요한다.”면서 실정 실책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일본인 이민자 즉 유지들의 불협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변영 지역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대지주의 무지와 유지(有志)된 자의 무능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대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의 필요성과 상수도⁴¹⁾ 계획의 미비를 지적한다. 또한 도시구획이 정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회계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사시험장, 연초전매국, 인문계 학교의 설립과 특히 병영 유치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으니 후지가 간타로를 비롯한 영주급 권위를 가진 최정상급 포식자에게 이것은 크나큰 도전이었다.

(3) 동척 이민의 유입증지와 소작쟁의

일본은 1908년 12월 조선에서의 이민사업을 목적으로 국책회사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⁴²⁾ 운영한다. 일본 자본주의 최전방에 위치하면서 식민경영

39) 『全羅北道要覽』(1927) 62쪽, 현 전주여자고등학교.

40) 『裡里案内』(1927), 72쪽.

41) 참고로 군산은 1912년에 군산선의 개통과 더불어 군산전기 건설, 1913년에 상수도가 개통되었다.

42) 이규수, 2000,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소유관계의 변동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집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쪽.

을 담당할 半官半民의 특수회사로 설립된 동척의 중심사업은 초기에는 이민사업에 필요한 토지집적과 척식 자금의 대부에 있었다. 또한 일본식 농법을 식민지에 보급시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일본의 인구문제와 절실한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하였다.⁴³⁾ 동척은 1911년부터 1927년까지 총 17차례 일본인을 조선으로 이주시켰다. 하지만 그 인원수는 계획에 턱없이 모자라는 5,908호에 불과했다. 동척 이민의 대부분은 정착한 농촌에서의 자작 경영을 포기하고 도회지로 나가 상업이나 고리대업 등 농업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특히, 이민 수용지의 확보 과정에서 비옥한 농경지를 탈취했기 때문에 조선 농민의 격렬한 이민 반대 투쟁에 직면하였고, 가격상승과 토지경병 저항으로 인한 토지매입의 곤란, 이민 대상인 일본 농민의 주저와 부적응 등으로 이민사업이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게 되자 경영방침을 바꾸어 소작제 농장경영에 주력하였다.⁴⁴⁾

1923년 《동아일보》는 매년 건너오는 수백 명의 일본인이 수만 명의 조선인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동척을 ‘조선잡식회사’로 부르며 맹비난했다. 결국 1927년에는 제17회 이민을 마지막으로 이민 모집이 중지되었다.⁴⁵⁾ 이리에서의 토지의 유효수요 창출의 한 부분이 막힌 것이다. 1920년에서 1939년 사이에 전라북도의 소작쟁의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730건에 적지 않은 비율(15.4%)을 차지했던 것을 보면 일제 지주와 소작농 간의 갈등 심화 정도를 알 수 있다. 1930년에서 1939년 사이에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쟁의가 많이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익산군은 김제 정읍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건이 발생했다.

2) 이리 지역경제의 침체

1927년판 『裡里案内』에는 유지들의 협찬 명단이 없고 광고지면도 거의 없었다. “이리의 농장주들은 이리에 거주하라”는 비판적 언사로 인한 유지들의 압력으로 협찬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파는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야마시타 에이지 등은 언론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믿고 도시발전을 위한 제안을 했지만 그 결과는 자본의 횡포에 따른 언론 길들이기로 결국 익산군청에서는 바로 이듬해 오로지 통계자료에 충실한 『益山郡事情』(1928)을 출간한다.

43) 김석준, 1986,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업전개 과정』,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44) 이규수, 위 같은 논문, 2~3쪽.

45) 이규수, 2003, 『일본인 농업이민의 전개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65쪽.

『益山郡事情』에서는 특별한 해설이나 의견 없이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계자료를 표와 수치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이리농림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뛰어난 학교인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체 교직원의 졸업학교를 보여주는 식이다. 또한 익산군의 각 면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1927년 통계로 보면 당시 이리는 인구 14,735명으로 전국 26위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익산군의 인구는 13만 3천 명이 넘는데, 전라북도 인구 125만에 대비하면 약 10%에 가깝다. 익산군 인구 가운데 가장 밀집된 지역은 이리역을 끼고 있는 익산면인데 익산군 인구의 10%를 웃돌았고 일본인이 2천5백 명 가까이 거주함을 보여준다.

『裡里案内』(1915)에서 오기 요네츠키(扁 米助)를 소개하면서 ‘일찍이 이리 땅이 원만을 잃고 신·구시가지가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도 그는 두 과를 묶는 역할자였다.’⁴⁶⁾고 표현했지만 이러한 갈등을 중재할 사람은 없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새로운 유지그룹의 비판적 태도의 견지는 익산의 유지정치와 사회상의 변화 즉 간섭집단의 등장을 의미한다.

(1) 『裡里案内』(1927)에서의 자본가 비판

당시 오하시 농장의 사진 속 성벽은 지배자나 통치자의 위엄을 상징하는 가히 영주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영주급 대농장주에 대해서 『裡里案内』(1915)에서는 찬양 일색이었는데 12년 후 야마시타 에이지는 이리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 및 자본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우리 이리가 얼마만큼 뛰어난 지리(地利)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금후의 발전에는 커다란 노력을 요하며, **거주자의 일치협력을 요한다.** 그것이 이상과 같이 각 농장주가 내지(일본)에 거주하고, 토지의 발전에 하등의 고려도 하지 않고서는 실로 대타격이다. 더구나 이들 각 농장이 매년 수납하는 소작료를 벼 15만 석으로 보아도 1석의 시세를 15엔으로 가정하여 그 금액이 225만 엔에 달하게 된다. 이 많은 금액은 가령 이 땅의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에 따라서 자연히 내선인의 이주를 촉진하여 저절로 장족의 대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경부선에 있어서 대구, 경의선에 있어서 평양과 같이 호남선에 있어서 유일한 대도시를 형성할 것은 감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농장주가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결과로서 그 금액의 거의 전부가 농장주의 거주지로 전송되어 토지의 윤택에는**

46) 이리에 온 초기 일본인 이민자들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컨대 이리의 발전책으로서는 먼저 각 농장주를 이곳에 거주시키는 것이 급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⁴⁷⁾

이리의 발전책으로 가장 시급한 일로 각 농장주들의 이리에의 거주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리에서 생산된 이익 금액의 전부가 농장주의 거주지로 전송되어 토지의 윤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오하시를 지적하고 있다. 농림학교 건축기금 모집 시 편협한 입장에 빠진 일을 상기시키면서 거주자의 일치협력을 요한다고 직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작 호소카와는 호남의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다. 오하시 역시 마찬가지로 후지이 간타로를 비롯해 조선인 자본가로 화성농장의 백인기나 은행자본가인 박영철 역시 경성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정상의 자본가는 일본이나 경성에 거주하고 실제로 ‘이리’를 이끄는 이들은 일본인 유력자층으로 주로 번영조합 관리자들이었다. 초기 이민 1세대들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요코미치 다다노즈케(横道只之助)와 야마시타 에이지를 비롯한 이리지역 간섭집단의 저항은 최상층 기득권자들이 『益山郡事情』이라는 새로운 책을 발간하면서 ‘융합’의 과정을 보인다. 그렇지만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남긴 이리의 지방지(地方誌)에서 보여 준 지역사회 내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공고한 有志정치(有志政治)의 균열의 서막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리의 부호 오하시 요이치가 1929년 사망한다. 부친 이름을 그대로 계승한 그의 아들 요이치가 농장주가 되면서 경영방침을 종전과 달리하고 이리의 토지 43만6천 평에 대하여 대대적인 매각을 단행한다. 이는 일본경제의 불황의 시작인 1927년 금융공황으로 시작한 쇼와공황(昭和恐慌)⁴⁸⁾과 1929년

47) 『裡里案内』(1927). 56쪽.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48) 今井清一, 『日本近代史 II』, 東京:岩波書店, 2007, 284-285쪽. 쇼와 공황은 1923년 발생한 관동대지진의 경제적 피해를 일본정부가 구제해주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지진 피해지역에서 발행한 어음은 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정부에서는 부실 어음을 재할인해줌으로써 은행의 부실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927년 3월 제국의회에서 이 어음의 처리방식이 스즈키상점(鈴木商店)을 비롯한 일부 자본가의 구제책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게 된다. 그러자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은행에 대규모 인출사건(인출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쿄와 중소도시의 은행이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4월에는 스즈키상점에 거액의 대출을 했던 대만의 중앙은행인 대만은행이 파산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1차 와카쓰키(若槻) 내각이 사퇴하고, 다나카(田中) 내각이 들어서는 등 경제적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었다. 새로 들어선 다나카 내각에서는 4월 22일 3주간 은행의 지급중지를 명령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며, 이 기간 일본정부에서는 거액의 대출을 각 은행에 지원해주면서 공황을 수습해 나갔다. 이렇듯 1927년 3월~5월의 쇼와공황은 1920년대 일본의 경제 불황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의 세계공황에 따른 깊은 관련성으로 일본 내의 오하시(大橋)은행 보증을 위한 교육책으로 보인다. 1930년 당시의 상황은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어 조선의 중앙지 《경성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오하시농장은 이리를 버리는가?

이리의 대지주 오하시농장은 이리시내의 택지 전부를 개방하여 희망자에게 이를 분양한다고 발표하였다. 원래 이리는 호남선 개통과 함께 발전한 신흥도시로, 이리시가지의 많은 부분을 몇 명의 대지주가 나누어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 소유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를 빌려 가옥을 건축해도 종래 지상권의 설정을 하지 않아 금융상 많은 불편을 견뎌왔다. 이리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실로 대지주의 토지독점에 의한 것이라는 세평이 있을 정도였다. 이때 익산면 총지번수 3,655필, 213만 1,282평 가운데 오하시농장이 소유한 지번수로서 그 9분의 1, 즉 432필, 면적으로 43만 6천여 평이다. 익산면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오하시농장의 토지개방은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격으로 그 법정지가는 12만 7,286엔(圓) 정도이다. 그런데 이리시가지만으로 하면 실로 그 4·5배의 지가가 될 것인데, 농장의 희망대로 각 개인에게 분양된다고 하면 이리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각 방면에 걸쳐 커다란 충동을 줄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리 도시로서의 앞날에 절대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각 방면에서 비상한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⁴⁹⁾

《경성일보》는 익산면 이리의 오하시농장이 차지하는 토지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규모의 토지를 점유한 오하시의 토지매각은 사회문제가 되고 이리의 발전은 담보상태를 걷게 된다.

1927년 쇼와공황에 따른 뱅크런이 겨우 가라앉을 때, 이리 사람들은 1927년 6월 우카기 가즈시게(宇恒一成) 총독의 방문을 기하여 전라북도청 이전을 진정⁵⁰⁾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같은 해 관립사범학교의 이리 유치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1928년 9월 이리의 유지 사사키(佐佐木)상점이 파산⁵¹⁾하여 이리 경제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반면 전주는 성진·대전·개성·함흥 등과 함께 부(府)로 승격⁵²⁾되었으니 신흥도시 이리의 전주에 대한 경쟁은 더 이상 진행되

49) 《京城日報》, 1930년 5월 29일 기사.

50) 《동아일보》, 1927년 06월 10일 기사.

51) 《동아일보》, 1928년 09월 18일 기사.

52) 《동아일보》, 1928년 09월 28일 기사.

지 못했다. 1928년 11월 2일 자 동아일보는 ‘소작료 감면은 말만의 생색, 실지에는 전대로 똑똑 받아’ 라며 이리동척지점의 행태를 꼬집었다. 1934년 전북 대지주인 함열의 다키화학(多木化学) 사장 다키 구메지로(多木久米次郎)는 소작령 폐지를 반대하면서 농림회관 건축기부 약정금 36만 원을 취소하는⁵³⁾ 지경에 이른다. 그래도 이리지역은 만경강 직강공사가 1935년까지 계속되었기에 공공사업에서의 양질 아닌 임시노동의 일자리는 있었지만 불황과 경기침체는 가속화되었다.

(2) 이민사회의 균열과 침체

192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산미증식계획을 변경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4월 22일에는 조선 전국의 은행이 모라토리엄으로 일제 휴업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여파는 이리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1927년 쇼와금융공황으로 인해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 禮次郎)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금융공황을 모라트리움 선언으로 가라앉히고, 보통선거법을 실시했으나 안보법 등의 악법으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기타 반정부 운동가들을 대거 검거하는 등 시절이 어수선했다. 1927년 4월 1일에 발효된 병역법은 일본 국민의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었다. 1927년 2월 15일 조선에서 좌우합작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가 결성되었고 10월에는 이리에서 가까운 서수 이엽사(瑞穗 二葉社)농장 소작인들이 소작료 불납동맹 항쟁이 있었다.

야마시타 에이지가 발행한 『裡里案内』(1927)는 광고나 협찬자를 신지 못하고 출간된다. 하지만 1928년 우여곡절 끝에 『益山郡事情』이 출간되는데, 후지이 간타로는 익산군 전반사항과 맥락이 부족한 서문을 보여준다.⁵⁴⁾ 이는 일본인 이민사회의 균열이었고 이 균열은 이리지역의 침체를 가져왔다. 이리 이민 1세대의 노여움에 이어 오하시²⁾세는 쇼와공황의 여파로 인한 이리의 땅을 처분하고 일본의 은행을 살리는데 이것은 전국중앙지에 보도되고 이리의 사회문제로 드러난다.

『益山郡事情』의 서문을 쓴 후지이 간타로에게도 경영위기가 찾아왔다. 1920년대 들어 만성 불황과 세계공황으로 자기 자본 조달에 차질을 빚은 데다 미가 하락과 서선농장의 장기간 소작쟁의까지 겹쳐 20년대 말 후지이(不二)홍

53) 《동아일보》, 1934년 03월 17일 기사.

54) 익산군의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글쓴이 기하라 히사시(木原 壽)의 자녀 잃음과 자신의 자녀 사망을 동일시하는 개인적인 인연에 서문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다.

업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된다. 이에 주 채권은행인 조선식산은행은 20년대 후반부터 후지이흥업의 기구 개편, 이사 선임, 사채(社債) 발행 등에 통제를 가했고, 30년대 초에는 기구 개편, 자본금 변경, 중역 선임에 개입함은 물론 업무 조사, 회계 감독에 이르러 결국 조선식산은행의 자회사인 성업사(成業社)를 최대 주주로 만들고 만다. 1930년 결국 후지이 간타로를 퇴출시켰다.⁵⁵⁾ 오하시는 죽고 그 아들은 이리의 토지를 팔아 자국의 은행을 건사하고 후지이는 이리 땅에서 퇴출되고 사사키는 파산을 선언했다. 이민 1세대의 몰락이었다.

쇼와 공황을 당하여 동경의 주가는 제1차세계대전 이전의 상황으로 폭락하고 1929년 10월 24일 뉴욕발 주가 폭락에 이은 세계공황이 겹치는 상황에 1930년의 유례없는 풍작은 쌀값의 폭락을 가져왔다. 1930년 군산향 이출미는 전년보다 격감⁵⁶⁾했고 소작료를 현물(쌀)이 아니라 돈으로 받은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모처럼 근대유럽의 민권사상에 기반한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정당정치는 후퇴하고 치안유지법이 들어서게 된다. 일제가 공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밀어붙인 만주 개발과 중일전쟁은 조선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고 이들은 새로운 농토를 찾아 만주로 떠나야 했다.

이리에도 방공연습이 계속되고 이리의 젊은이들은 징용에 나가야 했다. 이 동성이 잦은 터미널 도시에 정착과정에 있거나 탐색하는 사람 혹은 신분이 불안한 사람에게 은행은 문턱이 너무 높았다. 농업생산력은 늘었지만 이리 사람들은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질옥(質屋) 즉 전당포를 이용하거나 무진회사를 이용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감내해야만 했다. 1936년에는 이리방송국이 설립되고 숙원사업인 상수도는 193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완성되지만 이리는 조금씩 군도화(軍都化)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군국주의 과시즘과 결합한 일본경제는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시작해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도발에 이르는 과정 중 이리에서는 1935년 7월에는 제19, 제20사단의 호남대평야 사단대항 추계연습⁵⁷⁾ 실시된다. 이후 1937년 7월 중일전쟁 도발에 이어 1938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총동원에

5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 不二興業株式會社.

56) 《동아일보》 1930년 12월 06일 기사.

57) 1935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이리 외곽과 금마지역에서 청군과 홍군으로 나누어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는데 훈련기념사진첩에는 NHK라디오에서는 현장중계를 하였다. 1943년에도 사단 단위 전쟁훈련이 실시되었다. ‘김제, 만경 평야에 戰雲急迫 동서 양군 행동 개시 개전 벽두부터 장렬한 遭遇戰 경성사단 추계연습 개막’, 《동아일보》 1943년 10월 19일.

관하여 법규정을 통해 전면적인 전시경제 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물자통제와 노동력 동원을 전개한다.

1940년대에는 개정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면서 전면적인 국가통제가 전개되었다. 1943년 이후 조선의 인적, 물적 착취를 강화한 일제는 배급통제마져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생필품의 소비를 통제하고 결국 브레이크 없는 일본군 국주의는 패망에 이르는데 중소도시 이리의 모습은 조선의 다른 도시와 다르지 않았다. 이리에서도 전쟁말기 배급이 시작되었고 끝내 패망에 이른다. 이리 지역 3,000여 명의 일본인들은 1945년 11월 27일 이리역에서 수송 화차(貨車)에 오른 후, 11월 30일 부산에서 흑센마루(北鮮丸)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5. 맺음말

식민지 시대 일본인이 저술한 이리 관련 3권의 저작 『湖南寶庫 裡里案内, 近接地事情』(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一名 益山發展史』(1927)와 『益山郡事情』(1928)을 상호 연관구조 속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1915년 처음으로 간행한 읍지 ‘성격’의 도시안내서로 야마시타 에이지(山下英爾)가 저술한 『湖南寶庫 裡里案内, 近接地事情』과 1927년 동일 작가가 개정·증보한 제2판 격의 『湖南寶庫 裡里案内, 一名 益山發展史』가 있다. 두 권 다 私撰으로 이민 1세대의 정리와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홍보 성격의 안내서였다. 『裡里案内』 시리즈는 소위 쌀의 생산지 ‘호남의 보고’에 정착할 2세대 이민자의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목적의식으로 제작된 이민생활백서 내지는 안내서라 할 것이다. 그런데 1927년에 간행된 『裡里案内』는 초판본처럼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홍보, 정착과 지배세력 확장이라는 단계를 넘어 도시발전의 한계와 문제점을 이슈화하는 성격을 지녔다.

동척의 이민사업의 중지로 인한 일본인 이민의 진입이 한계에 이르고 관립 사범학교와 여자고보 설립유치에서 裡里는 전주와의 경쟁에서 밀린다. 이러한 고민을 타개하고자 지역 언론인은 이리의 문제점으로 부채지주에 대한 고연과 상수도 문제를 직격으로 드러낸다. 裡里의 유지들은 언론인의 고연에 너그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에 도시의 권력을 쥔 일본인 유지들은 도서발간 시 광고와 협찬을 극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1928년, 이리지역의 특별한 정치적 지형이나 경제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 1

년 만에 『益山郡事情』을 발간하는데, 官撰으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 통계로 일관한 모습이었다. 이 두 권의 상관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니 거기에는 일본인 이민사회의 균열이 있었다. 이후 裡里지역에서는 거대지주 오하시(大橋與市)의 토지매각에 이어 도시발전의 활력은 소강상태에 이르고 조선의 수리왕 후지가 간타로(藤井寬太郎)마저 퇴출된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인들은 그들이 세운 이리역을 통해서 빈손으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裡里案内』(1915)에는 裡里라는 공간의 물리적 환경변화에 따른 의식변화 등이 나타나 있다. 일본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조선 땅 낯선 공간에 대한 탐색 끝에 미개척지 이리에서 어떤 난관 속에서 경험을 쌓았고 어떤 문제로 고민하면서 성취하였는가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이러한 정보는 오늘날에도 버젓이 인용된다).⁵⁸⁾ 이 책은 새로운 쌀의 보고를 위한 치적의 기록이자 새로운 유효수요의 창출을 기대한 안내책자였다. 대단위 농장주와 상인들이 이끈 제국주의제향군인회와 학교조합 그리고 번영조합이라는 권력기관과 그 행사를 통해서 이민족 지배를 만들어냈는가를 자랑하지만 아직 이리는 중등학교도 설립하기 전이고 하나의 은행도 없는 도시였다. 결국 『裡里案内』(1915)는 수리조합의 건설과 철도부설을 통한 신도시 형성에 따른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홍보책자였다. 조작적 정의로 이 책은 이민자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가이드북인 만큼 호남지역의 근현대사 연구자들의 세심한 인용이 필요할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교통체계를 연결 완성한 직후 이리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1917년 지정면으로 성장한다. 이민자 상부구조가 설립한 학교조합은 지배자들이 이리를 움직인 동력이었다. 이리의 유지 즉 ‘빅 브러더’가 된 그들은 대농장을 거느리며 영주처럼 살면서 기차역을 독점했다. 교통은 도시를 낳고 도시의 인구 유입은 학교설립으로 이어졌다. 1판 성격의 『裡里案内』에는 언론

58) 물론 일본인들의 자화자찬에 대한 견해는 걸러 들을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益山市史』(2001)에는 이 책을 쓴 일본인의 시선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초기 익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인들이었으니, 그들은 익산을 이상적인 도시로 가꾸어 가려고 합병을 한 다음 해인 1911년 2월 15일 대교(大橋)농장 대표 지길원신(枝吉元信)과 선미조(扇米助), 전중부차랑(田中富次郎) 등이 발기하고 고천천대길(古川千大吉), 삼도무웅(森島武雄), 전중수일(田中數一) 등의 협조를 구하고 거주자 34인의 찬성을 얻어 조직한 익산번영조합이 그 모체가 되었던 것이니, 그들은 15개조의 규약을 만들어 조합장엔 지길원신, 부조합장엔 전중수일, 간사에 선미조, 평의원에 전중부차랑, 고천천대길, 삼호제차(三好諸次) 등을 뽑고 매월 조합비를 거출하여 제반사무에 충당하였으니, 곧 시가의 계획, 도로의 개착, 교육 경비기관 등의 시설 기타 관공서의 이전운동 등에 공헌한 바가 많았다.’

인과 유지들의 공생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2년 만에 출간된 『裡里案内』(1927)의 내용은 외부적으로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홍보의 성격을 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일본인 사회가 갖는 이리 발전 지체(遲滯)의 문제점을 이슈화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100여 장의 사진 화보가 실려 막대한 제작비가 든 『裡里案内』 개정판은 협찬 명단과 광고 지면이 없었다. ‘상수도문제의 해결과 지주들의 이리 거주’라는 야마시타 에이지의 고언을 도전으로 의식한 유지들의 압력으로 판단된다.

1915년의 『裡里案内』가 이리의 도약을 위한 운하건설이나 도로건설 등의 이슈를 제공했다면 1927년의 『裡里案内』에서는 상수도 문제와 이리의 명칭 문제를 넘어 무엇보다도 부재지주의 부재(不在)를 콕 집은 ‘이리의 농장주들은 이리에 살아야 한다’는 당면과제의 제시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를 전달하는 모험과 현실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인 이민사회 유지정치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슈를 터뜨리고 거기에 따른 균열과 갈등 양상으로 결국 익산군청에서는 바로 이듬해 『益山郡事情』(1928)을 발간하기에 이른다. 그 서술방식은 주관적 해석 없이 통계자료에 충실한 연감(年監)적 성격이 드러난다.

관립사범학교와 전북고녀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고 외부적 상황으로 동척의 이민사업은 중지된다. 이리의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유효수요는 창출되지 않았고 쇼와 공황에 이은 세계적 공황의 여파는 오하시 가문의 일본 본토 내의 은행을 살리기 위해 이리지역의 대단위 토지 처분으로 나타났다. 이리의 도시 발전은 지체되었고 이리 읍민들의 염원인 상수도 공사는 1930년대 후반이 되어야 완공을 볼 수 있었다.

1945년 8월 하순, 진주군(鎭駐軍) 미군이 이리에 들어온다. 이리농림학교에 주둔하던 호선(護鮮)사단은 무장해제 된다. 이리 주변의 광활한 농토를 소유하고 기차역을 독점하면서 쌀의 이수출에 앞장서던 민간소유의 모든 자산도 몰수되고 그들은 1945년 11월 27일 빈손으로 일본으로 인양(引揚)된다. (完)

참고문헌

<자료>

- 鎌田白堂, 1936, 『朝鮮の人物と事業, 湖南篇. 第一輯』, 群山: 實業之朝鮮社.
- 木原壽, 1928, 『益山郡事情』, 益山: 益山郡.
- 福島士朗, 1933, 『全北案内』, 全州: 全北日報社.
- 山下英爾, 1915, 『湖南寶庫 裡里案内, 附 近接地 事情』, 益山: 惠美須屋書店.
- 山下英爾, 1927, 『湖南寶庫 裡里案内-益山發展史』, 益山: 文化商會.
- 蘇祈永, 1932, 『益山郡誌』, 益山: 益山邑誌重刊事務所.
- 守永新三 編, 1914, 『全羅北道案内』, 全州: 全北日日新聞社.
- 宇津木初三郎, 1928, 『全羅北道發展史』, 益山: 文化商會.
- 益沃水利組合, 1923, 『益沃水利組合之事業』, 益山: 益沃水利組合.
- 全羅北道, 『全羅北道 統計年譜』, 全州: 全羅北道, 各 年 版.
- 全羅北道, 1924~1929, 『全羅北道道勢一斑』, 全州: 全羅北道.
- 田中市之助, 1917, 『大田發展誌』, 下関: 瞬報社.
- 朝鮮總督府, 1926, 『市街地の商圈』, 京城: 民俗苑.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朝鮮總督府, 各年版.
- 『朝鮮の人口現像』, 1927, 京城: 朝鮮總督府.
- 『朝鮮功勞者名鑑』, 1935, 阿部薰 編, 京城: 民衆時論社.
- 『朝鮮總督府 官報』, 1910~1945.
- 今井清一, 2007, 『日本近代史 II』, 東京: 岩波書店.
- 『일제시기 상수도 건설사업의 전개 과정』, 국가기록원.
- 익산시사편찬위원회, 2001, 『익산시사』, 익산.
- 『京城日報』, 『동아일보』

<연구논저>

- 김경남, 2020,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적 책임』,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김영정 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광주: 한울.
- 다카사키 소지(이규수 역), 2006,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고양: 역사비평사.

- 소순열, 원용찬, 2003, 『전북의 시장경제사』, 전주: 신아출판사.
 원용찬, 2004, 『일제하 전북의 농업수탈사』, 전주: 신아출판사.
 윤춘호, 2017, 『봉인된 역사』, 서울: 푸른길.
 이규수, 2018, 『제국과 식민지 사이』, 서울: 어문학사.
 이연식, 2012, 『조선을 떠나며』, 고양: 역사비평사.
 주봉규, 소순열, 1996, 『근대지역농업사연구』, 서울: 서울대출판부.

<논문>

- 김경남, 2016, 「일제하 식민도시 개발과 조선인 자본가 형성의 특징-전북지역 박기순·박영철 일가를 중심으로」, 『영남학』 30권, 199-242쪽.
 김경남, 2018, 「제국의 식민지 교통 통제 정책과 이리 식민도시 건설」, 『지역과 역사』 43권, 275-318쪽.
 신귀백, 2020, 「재조승려 오하시의 이리에서의 식민활동 연구」, 『지방사와 지방 문화』 23권 2호, 119-149쪽.
 오대륙, 2007, 「1920년대 ‘全北民衆運動者同盟’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1권, 62-97쪽.
 원도연, 2019, 「일제강점기 익산의 근대농업과 이리농림학교의 사회사」, 『열린 정신 인문학연구』 20권 3호, 105-133쪽.
 이규수, 2012,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소유관계의 변동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집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집, 185-221쪽.
 이규수, 2003, 「일본인 농업이민의 전개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정승진, 2008, 「일제시대 식민 ‘신도시’의 출현과 주변 농촌-전북 裡里와 大場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쌀·삶·문명연구』 1권.
 정승진, 2012,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 『아세아연구』 55권 4호, 198-228쪽.
 정승진, 2013, 「開發農政의 宣傳과 ‘同化主義’-全北 裡里발행 『朝鮮之産業』(1929~1936)의 분석」, 『대동문화연구』 84호, 495-542쪽.
 정승진, 2015, 「식민지기 학교조합과 호남의 일본인 이민자사회」, 『대동문화연구』 90호, 329-370쪽.
 진 실, 2014, 「일제강점 초기 일본인의 이리 이주와 도시형성」,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최혜주, 2013, 「190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호, 43-92쪽.

<웹 자료>

공훈전자사료관-국가보훈처, <https://e-gonghun.mpva.go.kr>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국토공간정보포털, <http://www.nsd.go.kr/lxportal/?menuno=2679>

우리 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https://www.ndl.go.jp/index.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ations by Japanese, Related to Iri(city) in the Colonial Era

Shin KuiBae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Iri city and to identify how it has influenced the local society. The study had to be limited to the analysis of Japanese historical data because of the scarcity of Korean documentation during the colonial era. Subsequently, the data allows for understanding of the city's history from the colonizer's perspective and gives insight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nial power. The study focuses on Iri area because of its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A traffic hub for Japanese crop exploitation, and a cultural twilight zone where two cities meet; the administrative city Jeonju and the maritime city Gunsan.

There are three books that fully cover the Iri's regional history under the Japanese colonial era. After the first 10 years of Japan occupying Iri, a guidebook featuring the first generation Japanese immigrants' report named 『*Guidebook of Iri*』(『裡里案内』) by Yamashita Eiji,(1915) was published in an attempt to recruit second generation immigrants to settle them in the rice plantation so-called 'Iri, the Gold mine of Honam'.

Unlike the first edition's promotional feature to bring new settlers, 『*Guidebook of Iri*』(『裡里案内』), the second edition, *Iri's* published in 1927, pointed out problems and limitations of *Iri's* urban development.

With cessation of immigration business in Oriental colonization company and failing to establish new noble schools, Iri's Japanese population stopped its growth. To overcome the situation, local Japanese press urged the wealthy to amend the city's problems; land lords lack of attention and water supply. But the wealthy did not like the accusation and responded by withdrawing advertisements and minimizing the sponsorship.

Usually the regional informative publications were updated every ten years,

* Institute for Modern Iksan

but only a year later Iksan County office published an Iri's regional information called 『*Iksan Circumstances*』(『益山郡事情』)(1928) using the same information as 『*Guidebook of Iri*』(1927) but only with minor new statistics. With a careful look, it was found that there had been disruptions in the Japanese immigrants society.

After the mid-1930s, with the National Mobilization Law and the Joseon Division Training in Iri, the city began to delay its development. As a result, Iri's the richest landlord, Ohashi Yoichi (大橋與市) sold his massive estate and Joseon's waterway kingpin Fujii Kantaro (藤井寛太郎) was expelled to Japan. After the defeat in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the Japanese left Korea empty handed via Iri station, the very station they built themselves to rule Korea.

Key Words : Iri, Iksan, Japanese Colonial Era, Japanese immigrants, 『*Guidebook of Iri*』(『裡里案内』), 『*Iksan Circumstances*』(『益山郡事情』)